

90주년 광주극장서 ‘봉준호’ 만난다



‘광주극장 영화제’ 10월17~11월16일...각국 색선별 영화 다채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은 지역 영화문화의 상징이자 역사를 품은 공간이다. 필름에서 디지털로, 손간판에서 복원 상영으로 이어진 세월을 아우르며, 한 세대의 영화사를 기록해왔다. 그 오랜 시간의 이야기가 다시 관객에게로 이어진다. 광주극장 개관 90주년을 맞아 한 달간의 영화 축제가 펼쳐진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관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연다. 이번 영화제는 90년 동안 함께해온 관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영화가 이어온 세대 간의 기억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한국 영화의 거장 봉준호 감독을 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돼 관심이 쏠린다. 봉 감독이 직접 광주극장을 찾아 관객과 만나는 시간도 예정돼 있어 시네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클래식 영화, 지역 극장과 사람들의 이야기 등 다채로운 색선이 이어진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7시 열린다. ‘10기 간판학교 워크숍’에 참여한 15명의 시민이 40여 일 동안 완성한 순간판을 공개하며 축

‘아푸 3부작’ (길의 노래·불굴의 인간·아푸의 세계), 현대 이탈리아 감독 알리체 로르바케르의 ‘행복한 라짜로’ 등 네오리얼리즘의 정신을 계승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오는 19일에는 한창욱 영화평론가가 ‘전화의 저편’을, 21일에는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길의 노래’를 각각 시네토크로 풀어내 깊이 있는 해석을 더한다.

‘클래식 아카이브’ 색선에서는 장 르누아르의 ‘토니’, ‘광주씨의 밤’, 피터 그리너웨이의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노노케히메’ 등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이 디지털 복원본으로 상영된다.

음악과 공연을 스크린으로 옮긴 ‘스테이지 투 스크린’에서는 ‘한 여름밤의 재즈’, ‘스탑 메이킹 센스’, ‘슈퍼소닉’, 그리고 지역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담은 ‘버터네고 존 재하기’가 관객을 만난다. 뮤지션 성기완, 최고은 등이 참여하는 시네편서트와 뮤직토크, 댄서어용 상영회도 준비돼 영화제의 현장감을 더한다.

‘우리의 극장, 우리의 이야기’ 색선은 극장과 관객의 기억을 다룬 작품으로 꾸며졌다.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시네마 천국’이 다시 스크린에 오르며, 원주 아카데미극장

광주시네마테크와 한달간...관객에 감사·세대간 추억 나눔

17일 개막식...간판학교 워크숍 참여 시민 15명 순간판 공개
다음달 8일 봉준호 감독과 대화...‘극장 노트’ 프로그램 마련

제의 문을 연다.

이어 상영되는 개막작은 김동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한국과 아시아의 극장과 영화제를 찾아다니며 ‘극장’의 의미를 되묻는 작품이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GV)도 마련된다.

올해 영화제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네오리얼리즘의 유산’, ‘클래식 아카이브’, ‘스테이지 투 스크린’, ‘우리의 극장, 우리의 이야기’, ‘봉준호의 극장 노트’, ‘독립의 체온’ 등 총 7개 색선으로 구성됐다.

우선 20세기 영화사의 전환점이자 수많은 감독들에게 영감을 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을 집중 조명한다.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 ‘전화의 저편’, ‘독일 영년’을 비롯해 루치노 비스콘티의 ‘흔들리는 대지’, 비토리오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 ‘움베르토 D’ 등이 상영된다. 전후 유럽의 현실과 인간의 존엄을 기록한 대표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도 거장 사티야지트 레이의

의 철거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무너지지 않는다’가 11월 14일 GV로 상영된다.

또 90주년 특별 프로그램으로 ‘봉준호의 극장 노트’ 색선이 마련됐다.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마더(흑백판)’가 상영되고, 그가 직접 추천한 두 편의 영화 ‘바톤 핑크’와 ‘뜨거운 오후’가 함께 소개된다.

봉 감독이 직접 광주극장을 찾아오는 자리도 마련됐다. 11월 8일 ‘바톤 핑크’ 시네토크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해온 영화와 극장에 대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눈다. 90년 동안 지역 영화의 중심을 지켜온 극장이 세계적인 감독과 함께 스크린의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90년 동안 관객과 함께 쌓아온 세월이 이번 영화제 곳곳에 담겼다”며 “극장이 시대와 호흡하며 시민과 만나는 공간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람료 성인 1만원, 청소년 9000원, 노인·장애인 7000원, 디트릭스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다큐 거장 프레더릭 와이즈먼의 작품 세계

광주독립영화관, 내일부터 4일간 ‘전작 순회 회고전’

프레더릭 와이즈먼(1930~·사진)은 50여 년간 사회 제도의 내면을 탐구하며 ‘관찰의 시인’으로 불려왔다. 경찰·병원·학교·법정 등 다양한 기관을 기록해온 그는 카메라를 통해 제도의 작동 방식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초상을 끈질기게 응시했다. 그의 영화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의 구조적 풍경을 드러내며 다큐멘터리가 예술이자 사유의 장르임을 증명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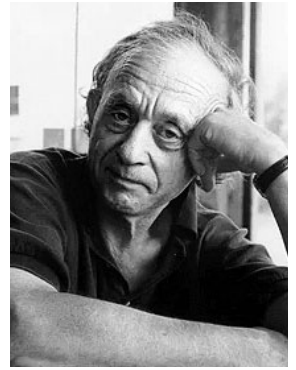
한 세기의 다큐멘터리 역사를 관통한 거장 프레더릭 와이즈먼의 영화들이 광주 관객들과 만난다.

‘프레더릭 와이즈먼 전작 순회 회고전’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주최,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주관.

이번 회고전은 지난해 4K 디지털로 복원된 와이즈먼의 작품을 국내에 순회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의 대표작 8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1967년 첫 작품 ‘티터킷 풍자극’을 비롯해 ‘법과 질서’ ‘병원’ ‘에스판’ ‘코메디-프랑세즈’ ‘라 당스’ ‘버클리에서’ ‘뉴욕 라이브러리에서’까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다큐멘터리의 여정을 집대성한다.

개막작 ‘라 당스’ (16일 오후 6시 20분)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리허설실과 무대 뒤를 따라가며 예술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긴장과 질서를 세밀하게 포착한다. 와이즈먼은 화려한 공연의 이면에서 예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구현하며 예술과 노동, 규율이 맞닿은 세계를 그려낸다.

17일 오후 12시 50분에는 그의 첫 작품 ‘티터킷 풍자극’이 상영된다. 매사추세츠주 브리지워터 주립병원을 배경으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수감



자들의 현실을 고발한 작품이다. 강제금식과 구금, 언어폭력 등 충격적인 장면을 담아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다큐멘터리 표현의 경계를 넓힌 기념비적 영화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일상의 공공력을 담은 ‘법과 질서’, 의료 제도의 구조를 해부한 ‘병원’, 휴양지와 노동자의 대비를 통해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비춘 ‘에스판’ 등 사회 시스템의 다양한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잇달아 상영된다.

후기작 ‘버클리에서’와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는 각각 대학교와 도서관을 무대로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탐구하며 감독의 시선이 제도의 내부에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와이즈먼 감독의 작품은 사회 제도의 이면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 시대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기록”이라며 “이번 회고전이 다큐멘터리가 품은 예술적 깊이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 4000원, 디트릭스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의 혼 울리는 ‘의로움의 노래’

광주벨칸토성악아카데미 ‘호국의 빛...’ 19일 광주예술의전당

충장공 김덕령(1567~1596)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맞서 싸운 대표적 의병장으로 결백을 지키다 억울한 옥사로 생을 마쳤다. 그의 스승이자 호남 의병의 상징인 고경명(1533~1592) 선생은 금산전투에서 순절하며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한 몸을 아끼랴”는 충절의 뜻을 남겼다.

두 사람의 의병정신은 오늘날까지도 광주가 ‘의로움의 도시’로 기억되는 근원이 되었다. 호국의 고장 광주에서 의병의 정신이 노래로 되살아난다.

광주벨칸토성악아카데미(회장 김영실)는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42회 정기연주회 ‘호국의 빛, 광주를 밝히다’를 연다.

이번 무대는 광주의 역사와 예술혼을 결합해, 의병장 김덕령과 고경명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음악으로 되새기는 뜻깊은 공연이다.

무대에는 작곡가 정별님과 시인 이호복이 함께한 창작곡들이 중심을 이룬다. ‘취가정의 봄’, ‘아무도 듣는 이 없네’, ‘새의 비상-날아 꿈꾸리’는 김덕령·고경명 장군의 삶과 신념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합창과 독창, 피아노가 교차하며 의병의 서사를 음악으로 재현한다.

이와 함께 윤학준의 ‘나 하나 꽃피어’, 김효근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베르디와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 스메타나의 피아노 듀오곡 ‘물다우’ 등 국내외 명곡이 더해져 공연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특히 마지막 순서에서는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한태수의 ‘아름다운 나라’가 연이어 울려 퍼지며 공연의 메시지를 ‘평화와 희망’으로 확장한다.

무대에는 구제창, 김관식, 김영실, 박선경, 신연석, 윤희정, 정별님 등 광주와 수도권에서 활약 중인 중견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해 웅장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완성한다. 피아노는 이영아, 나원진, 김보라가 맡고 해설은 메조소프라노 임지현이 진행한다.

김영실 회장은 “광주는 언제나 정의의 불씨를 지켜온 도시였다”며 “의병의 정신을 예술로 잇는 이 무대를 통해 오늘의 우리가 다시금 용기와 연대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VIP석 2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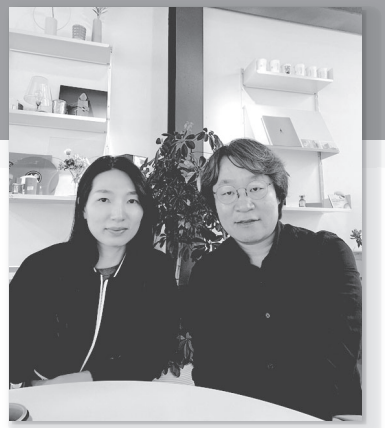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